



Patrick Michael Fitzgerald, *Abodes - Isolation II*, 2024, Acrylic and oil paint on linen and wood support, 33 x 55 cm

I find it fascinating to look at abstraction. When I encounter a painting that holds my attention—though I'm not sure if it is decided before or after I see it—I immediately begin to wonder: *What is going on here?* There's something compelling about asking this question while focusing on a confined space, like a small canvas. Is this white plane multiplying? Is it ascending or descending? Why is the left side of the band angled, evoking the movement of a ballerina? Is it reaching toward something, or has it simply been cut, like a piece of paper? How many forms are present—two or three? Are they converging or pulling apart?

Looking at art demands mental processing. My mind works like an AI before a painting, rapidly sifting through stored images and associations. This happens so fast that it almost feels like a physical reaction, like responding to a touch. This is a gentle prod, I would say, that electrifies cells in my body.

As I scan my mental and physical archives, I search for connections. A Braque I once saw at an art fair comes to mind—one of his small fruit paintings. Then I think of Seurat's drawings, his figures and shadows. Or Balthus's *Nude Before a Mantel* at the Met, which I used to visit often. It's funny that I thought of this particular painting of Balthus, which struck me as erect and still. What *family resemblances*, in the Wittgensteinian sense, link these images in my mind?

The painting I'm looking at is titled *Abode-Isolation II*. I don't know exactly what the artist intended with this title, but I recognize that isolation is a method used by both Abstract artists and scientists. By isolating elements, one can observe them more clearly or perceive them from

new angles. Robert Ryman isolated *white*, exploring its endless variations. Josef Albers fixated on the square, using it as a vessel for color. Is Patrick Michael Fitzgerald reflecting on these artistic acts, or is he contemplating human—perhaps even personal—*isolation*?

All of Fitzgerald's forms, marks, and lines seem to be in motion. I would say that it is pretty specific kind of movement in a way that they are so determined to be ambiguous. Anything that moves voluntarily has a soul, the ancient Greeks decided. Movement means quest—humans move in search of food, in pursuit of meaning. Does this very condition make us ambivalent about life itself?

As we expect in Fitzgerald's work, the forms in this painting are unclear whether they are *engaged in* or *detached* from the movements they are in. I try to *isolate* ambivalent moments in my own life, hoping they are as wonderful as this one.

Mimi Park

—

추상을 보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일이다. 불만한 그림—그것이 내가 보기 전 또는 본 후에 결정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그림을 마주할 때, 바로 궁금해진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작은 캔버스라는 한정된 공간에 집중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묘하게 매력적이다. 이 그림 속 하얀 면은 증식하는 중인가? 상승하고 있는가, 하강하고 있는가? 이 긴 평면의 왼쪽 끝은 왜 각져있을까? 발레리나의 움직임이 연상된다. 무언가를 향하고 있나, 아니면 종이가 잘리듯 단순히 잘려나간 것일까? 여기에 존재하는 형상은 두 개일까, 세 개일까? 이들은 합치는 중인가, 아니면 분리되는 중인가?

예술을 바라보는 것은 지적인 처리 과정을 요구한다. 내 머릿속은 마치 AI처럼, 그림 앞에서 빠르게 저장된 이미지와 연상들을 탐색한다. 이 과정은 매우 빨리 일어나서 거의 신체적인 반응과 같다. 어떤 건 드림에 반응하는 것과 유사하다. 미묘한 자극이지만 내 세포들을 흔들어 놓는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저장된 이미지와 연상들을 스캔한다. 한때 아트 페어에서 보았던 브라크의 작은 과일 정물화가 떠오른다. 이어서 인물들과 그림자로 이루어진 쇠라의 드로잉도 몇 점 생각난다.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자주 보았던 발튀스의 벽난로 앞의 누드일 수도 있다. 발튀스의 이 그림이 떠올랐다는 것이 재밌다. 그림 속 여자는 깨끗하고 정적이다. 이 이미지들을 어떤 지점에서 연결될까?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유사성이 작용한다면 각각 어떤 유사점들이 있는 것일까?

내가 바라보는 이 그림의 제목은 *Abode-Isolation II*다. 이 제목으로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나는 '고립'이 추상 작가와 과학자 모두가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안다. 요소들을 분

리함으로써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관찰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로버트 라이먼은 ‘흰 색’을 분리해내어 이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했다. 요제프 알버스는 ‘정사각형’을 분리하여 그 형태를 적용하여 색의 세계를 탐구했다. 그렇다면 패트릭 마이클 피츠제럴드의 ‘고립’은 이러한 예술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 차원의, 어쩌면 개인적인 고립에 대해 천착하는 것일까?

패트릭 마이클 피츠제럴드의 형태, 선, 그리고 흔적들은 언제나 움직인다. 나는 그의 회화 속 움직임을 꽤 특정한 종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확고하게 모호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영혼을 지닌다고,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각했다. 움직임은 탐색을 의미한다—인간은 음식을 찾아 이동하고, 의미를 좇아 움직인다. 이 조건 자체가 우리가 삶에 대해 이중적인, 모호한 감정을 갖게 만드는 것일까?

예상대로 이 그림 속에서도 피츠제럴드의 형상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혹은 동떨어져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나도 삶 속에서 이런 애매한 순간들을 분리해보려 한다. 그 순간들이 이 그림처럼 매력적이길 바라면서.

박상미